

■ 주요 뉴스: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관련 불확실성 증대(해닛 NEC 위원장 ↓, 위시前 연준 이사 ↑)

- 연준 블랙아웃 기간(1.18~30일) 임박. 주요 인사, 1월 동결 지지 및 유연성 강조
- 중국-캐나다,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재설정 합의(加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하 등)
- 유로존 주요국 물가, 중기적 안정 재확인. 일본 엔화, 구두개입 이후 약세 둔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 '25.4분기 기업실적 및 차기 연준 의장 관련 불확실성에 반응

미국 주가 약보합[-0.06%], 달러화 강보합[+0.07%],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은 7,000pt 근접 이후 혼조. 반도체주 상승, 헬스케어주 하락
유로 Stoxx600은 명품·광산 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보합(-0.03%)
- 환율: 달러화지수, 일본 외환당국 구두개입에 따른 엔低로 상승 폭 제한
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0.1% 약세, 엔화는 0.3% 강세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해닛 NEC 위원장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 감소로 상승
독일은 ECB 금리동결 전망 불구,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72.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73.9원, 0.02% 상승). 한국 CDS 보합

		1.16일	1.15일	전일대비			1.16일	1.15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940.0	6,944.5	-0.06%	국채 금리 10y	미국	4.22%	4.17%	+5bp
	유럽	614.38	614.57	-0.03%		독일	2.84%	2.82%	+2bp
	중국	4,101.9	4,112.6	-0.26%		영국	4.40%	4.39%	+1bp
	일본	53,936	54,111	-0.32%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4,840.7	4,797.6	+0.90%		중국	43bp	43bp	+0bp
	달러지수	99.39	99.32	+0.07%	위험 지표	EMBI+	-	264	-
환율	유로화	1.1598	1.1609	-0.09%		VIX	15.86	15.84	+0.13%
	엔화	158.12	158.63	+0.32%		WTI유	59.44	59.19	+0.42%
	위안화	6.9703	6.9671	-0.05%	원자재	구리	583.1	599.2	-2.68%
	원화	1,473.6	1,469.7	-0.26%		금	4,596.1	4,616.2	-0.4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차기 연준 의장 인선 관련 불확실성 증대

○ 트럼프 대통령은 해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백악관 내 경제 문제를 대변해 주는 핵심적인 인물^{messenger}로 일컬으면서, 그를 신중한 소통 기조를 견지("they don't talk much")한 연준으로 옮기는 것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발언

*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 비둘기파 성향

- 해시 위원장, 최근 진행되고 있는 연준 파월 의장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정보 요청에 불과하며 수사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다만, 연준이 리모델링 비용 초과 사실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부언

○ 이로 인해 워시 전^前 연준 이사가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부상했다는 분석(Evercore ISI)이 제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시 전 이사 면접(12.17일) 이후 긍정적인 평가("great")를 내놓은 바 있음

○ 보스턴 연은 콜린스 총재, 연준은 단기적으로 인기 없는 결정도 책임감 있게 내릴 수 있도록 미국 의회가 독립성을 부여해 설립한 중앙은행이며, 이러한 독립성이 장기적 물가안정과 최대고용 달성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발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블랙아웃 기간(1.18~30일) 임박. 주요 인사, 1월 동결 지지 및 유연성 강조

○ 제퍼슨 부의장, 금년 미국 경제·노동시장·인플레이션에 대해 신중하게 낙관하면서 최근 연준 정책금리가 중립 범위에 진입한 만큼 향후 경제전망 및 상하방 위험 변화에 따라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well positioned}에 있다고 언급

○ 보우먼 부의장(금융감독), 미국 경제활동이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근처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견지하면서도, 노동시장 상황이 명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지 않을 경우 정책금리를 조정할 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추가 인하를 중단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발언

■ 중국-캐나다 정상,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 재설정 합의

- 중국 정부, 신화통신(관영 언론)을 통해 중국-캐나다 정상 공동성명 발표. 주요 내용은 ▲상호존중 원칙 재확인 및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추진 ▲경제 · 무역 · 에너지 · 금융(통화스왑 연장) · 안보 협력 복원 ▲문화 교류 및 다자간 공조 확대 등
- 캐나다 카니 총리, 중국산 전기차*, 카놀라** 등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최근 수개월 간 對중국 관계가 더욱 예측 가능해졌다고 평가. 향후에는 해상풍력 등 투자에서 중국과 파트너십을 맺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

* 106.1% → 6.1%(최대 4.9만대, 최해국대우MFN) ** 84% → 15%

■ 유로존 주요국 인플레이션, 중기적 안정 재확인

-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 '25년 중 독일 CPI 상승률이 연말로 갈수록 둔화되면서 12월에는 2%를 하회(+1.8%)했으며 연 평균은 '24년과 같은 +2.2%(식품 · 에너지 제외 시 +2.8%)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안정되었다고 평가.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이 발표한 '25년 평균 이탈리아 CPI 상승률은 +1.5%(근원은 +1.9%)

■ 일본 엔화, 외환당국 구두개입 강화 이후 약세 둔화

- 가타야마 재무상,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공조개입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최근 미국 베센트 재무 장관과도 엔화의 일방적인 약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부언. 해당 발언 이후 엔화 환율은 달러당 158.6엔에서 158엔대 초반으로 하락(1.16일 0.3% 강세)

■ 인도, 방위산업 외국인직접투자(FDI)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조짐

- Reuters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의 방산기업 투자 한도(지분율 기준)를 49% → 74%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합작투자 기업의 과반 지분 확보를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둔 조치라고 보도. 아울러, 인도는 파키스탄과의 무력 충돌(25.5월~) 이후 국방부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

* '25년 1~9월 중 對인도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액(\$7,650억) 중 방산 부문은 \$0.3억에 불과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유로존 12월 CPI_{확정치}, 중국 4분기 GDP(+4.5%), 12월 소매판매(+1.1%) · 산업생산(+5.0%_{이상 yoy}), 일본 11월 근원 기계수주(-6.4%_{mom}) 등 발표(괄호는 Bloomberg 서베이)
- 세계경제포럼_{WEF}(다보스 포럼) 개막(~1.23일) 중 미국 트럼프 대통령 연설, 유로존 재무 장관 회의(차기 ECB 부총재 지명, 현 부총재 임기는 ~5월) 등 예정(이상 현지 1.19일 기준)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